

# 렌터카 교통사고 잦은 곳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위험지도' 제작·배포 10곳 선정... 용담2동 공항 입구 교차로 가장 위험 최근 3년 총 1560건 발생... 20명 사망·2731명 부상

제주에 렌터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급기야 '위험지도'까지 만들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렌터카 교통사고 위험지도' 3만부를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위험지도는 최근 3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지점 및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10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시 용담2동 공항 입구 교차로가 12건 발생·20명 부상으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혔다. 사고 유형은 신호나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차 대 차 충돌이다.

이어 ▷제주시 일도1동 중앙사거리(12건·부상 12명) ▷제주시 조천읍 함덕우회도로(6건·부상 5명·사망 1명)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주동로(4건·부상 24명)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일주동로(8건·부상 18명·사망 1명)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교차로 예코랜드CC 인근(8건·부상 29명) ▷제주시 봉개동 변영로(4건·부상 5명·사망 2명) ▷제주시 애월읍 객지해수욕장 인근 일주서로(6건·부상 11명·사망 1명)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18건·부상 28

명)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하모중앙로(5건·부상 5명·사망 1명) 순이다.

김기웅 제주본부장은 "위험지도 제작·배포가 렌터카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심각성을 인지시켜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도내 교통사고는 2016년 4434건(사망 80명·부상 6885명), 2017년 4378건(사망 80명·부상 6602명), 2018년 4239건(사망 82명·부상 6611명)이다. 이 가운데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 526건(사망 7명·부상 947명), 2017년 521건(사망 7명·부상 879명), 2018년 513건(사망 6명·부상 905명)으로, 최근 3년 평균 교통사고 중 건수는 12%, 사망자는 8.3%, 부상자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 ■ 어제 고유정 3차 공판 / 대검찰청 DNA·화학 감정관 증언 “피해자 혈흔에서 줄피템 검출된 것 맞다”

전 남편 살해사건을 둘러싸고 촉발된 '줄피템·혈흔 증거'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병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전 재판과 달리 고씨는 입장 과정에서 고개를 들고 머리도 스스로 감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5분쯤 지나자 방청석 쪽으로 머리를 내려 얼굴을 가렸다.

이날 재판은 증거물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와 수면제 성분인 '줄피템'이 각각 다른 혈흔에서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 DNA 감정관·화학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이 의혹은 지난 재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이 제기했다.

먼저 DNA 감정관은 “증거물에서

총 154개의 관련 흔적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17개에서는 인혈(人血)이 검출됐다”며 “특히 증거물 중 하나인 붉은색 담요에서는 인혈 7개가 나왔는데, 4개에서는 피해자의 DNA, 1개에서는 피해자와 고씨의 DNA가 동시에 검출됐다. 나머지 2개는 DNA가 충분치 않아 특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을 마친 후에는 각 혈흔에 번호를 매긴 뒤 화학 부서로 증거물을 넘겼다”며 “줄피템은 화학 부서 담당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정에서 선 화학 감정관은 “붉은색 담요에 있는 인혈 2개에서 줄피템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 인혈 2개는 모두 피해자의 DNA가 단독으로 검출된 곳”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이 “혈흔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DNA와 줄피

템 성분이 한 곳에서 검출된 것인지, 각각 다른 혈흔에서 검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한 의혹이 일부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을 추가 증인으로 불러 이 의혹을 일단락 시킬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공소 사실과 관련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용 역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모두진술한 부분과 다를 것이 없다. 굳이 원한다면 다음 재판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모두진술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으로 빚어진 참극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송은범기자

## 학대 사망 의붓아들 계모 징역 15년

### 제주지법 어제 선고공판

제주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 아들인 김모(5)를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근에 충격을 가해 4cm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다음날 병원 진료에서 의사로부터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머리에 2도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김군의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면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군 사망 이후 형제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친자감정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저질렀다. 학대 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운행중 SUV차량 화재

15일 오후 8시14분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중산간도로에서 정모(46)씨가 몰던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 사진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SUV차량이 전소되는 등 4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승용차-승합차 충돌

16일 오전 6시41분쯤 서귀포시 신호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64·여)씨와 승합차 운전자 B(52)씨 등 4명이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 서귀포시 독감 무료 접종

서귀포보건소는 17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역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

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어린이(생후 6개월~12세 이하), 만60세 이상, 임신부다.

17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생후 6개월에서 만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처음인 경우)는 접종이 가능하며 임신부와 만75세 이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앵배추 브로컬리 무우 앵패 배추 → 희소식

###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b>앵배추 브로컬리 앵패 배추 (500ml당 500배 희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li> <li>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li> <li>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li> </ul>
<b>감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li> <li>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li> </ul>
<b>무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li> <li>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li> </ul>
<b>마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li> <li>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li> <li>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li> </ul>

###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